

“고려대장경은 강화도가 아니라 남해에서 조성됐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동국대 정각원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 기념 법회사

“초조대장경은 1011년부터 1087년까지 77년 동안 판각(板刻)됐고, 해인사 대장경판(팔만대장경)은 강화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설치해 1236년부터 1251년까지 판각됐다고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강화 선원사가 아닌 경남 남해에서 조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은 10월 13일 동국대 정각원이 주최한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 기념 특별법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이날 “1978년부터 자료를 수집한 결과 팔만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된 것이 확실하다. 그동안 팔만대장경의 제작을 위해 강화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남해에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측해왔으나 두 곳 모두 동일한 곳이었고 남해였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상국 원장의 정각원 특별법회 발표 요약이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그동안 일본 강점기부터 초조대장경은 현종 2년인 1011년부터 선종 4년인 1087년까지 77년 동안 판각됐고, 해인사 대장경판은 선원사에서 대장도감이 설치돼 1236년에서 1251년까지 판각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7년 걸렸다는 학설은 비상식적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된 한국 최초의 대장경입니다. 이 대장경은 중국 북송 대장경(971~97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간행된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입니다.

그동안 판각시기에 대해서는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나오는 현종 2년인 1011년에 시작한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77년 판각기간은 비상식적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판각했는데도 1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조대장경 판각에 77년이 걸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려대장경의 판각 77년은 고려 세가 중 선종 4년인 1087년 등장하는 개국사(開國寺), 흥왕사(興王寺), 귀법사(歸法寺)에 대한 기록이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1011년부터 1087년까지 77년이 걸려 새겨졌다고 알려진 것보다 2월 11일(甲午) 행개국사 경성대장경(幸開國寺 慶成大藏經), 3월 7일(己未) 왕여흥왕사 경성대장전(王如興王寺 慶成大藏殿) 4월 19일(庚子) 행귀법사 경성대장경(幸歸法寺 慶成大藏經) 기록을 살펴보면 2월과 4월에 개국사와 귀법사에서 각각 대장경을 한부씩 봉안하는 의식이 열려 참석했고, 3월에는 흥왕사에 대장경 판본 봉안을 위한 대장전이 지어져 그 낙성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경도대 명예교수인 짜쿠사 교수에 의하면, 북송 개보판 대장경은 판각기간이 971년에서 977년까지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는 중국 못지 않은 인쇄문화대국이었고,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판각했는데도 준비 기간까지 합쳐서 16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초조대장경 판각에 77년이 걸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조대장경은 송 개보판 대장경을 저본으로 새겼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에 실린 <근본설일체비나야파승사>를 보면, 국전본(國前本)과 국후본(國後本)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전본과 송본 그리고 국후본과 거란본을 비교한 것을 보면 문종 때 새긴 경전은 거란본을 상당수 수용했고 현종 때 새긴 것과 중복되는 경전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전본은 송 개보장을 저본으로 하여 현종 때 판각을 완료했고, 국후본은 밀교경전 등 송 신역(新譯)경전과 거란대장경의 일부 경전을 수용해 문종 때 추가로 판각된 것입니다.

문종 때는 초조대장경 판각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초조대장경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속편(속장경)으로 판각된 것입니다.

판각기간은 현종 때의 초조대장경 판각은 1011년부터 10년, 문종 때의 속장경은 1065년부터 5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만대장경도 조성 16년 틀리다. 12년 조성설이 맞아 맞다.

초조대장경판이 1232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 버려서 다시 새긴 것이 해인사에 있는 일명 팔만대장경판인 고려대장경판입니다.

그동안 고려대장경 판각 시기는 <고려사>를 보면 ‘고종 38년(1251) 9월 임오(壬午)에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으로 현종 때 판본이 임진년(1232) 몽고 침입 때 불타 버려 군신이 다시 발원해 도감을 세우고 16년이 걸려 마쳤다’고 고유(告由)한 고유제에 참석한 내용에 기반합니다. 학계는 고종 38년을 기점으로 16년 전인 고종 23년에 판각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 기록은 대장경의 판각을 모두 마친데 대한 경축의식을 행한 내용으로 판각 기간 산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장경판 판각은 이미 고종 35년에 모두 마쳤는데 경축 의식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축 의식이 늦어진 것은 당시 대장경 판각을 모

초조대장경 조성기간 10년

팔만대장경 조성기간 12년

조성지는 강화도 아닌 남해

최저 무인정권 재정 뒷받침

두 마치고 난 뒤 대장경 판각을 담당했던 분사남해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대장경판을 강화의 대장경판당으로 운반해야 했고, 또한 무엇보다 대장경 판각을 지원했던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우가 고종 36년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최항이 집권하는 정치적인 과도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판각 기간의 잘못된 추정 은 전래된 역사 자료의 결핍 탓으로 돌려집니다. 그러나 현존 판본의 권말에는 정유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丁酉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등으로 간행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간기를 조사해 보면 대장경판의 판각 기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학계 통설보다 앞서는 대장경판 조성시기는 고종 19년(1232)에 초조대장경판이 소실됐고 더구나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곧바로 대장경판 조성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정황으로 설명가능합니다.

판각한 것은 1237년 2종 115권을 판각한 것을 시작해 1248년 대장목록 판각을 마지막으로 12년이 걸려 1496종 6568권을 완료했습니다.

강화도가 아닌 남해에서 판각됐다.

그렇다면 고려대장경판각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동안 고려대장경은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이 설치돼 선원사에서 판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경판의 간기를 조사해 본 결과 1243년부터 대

장경 판각이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대장경판은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판만 아니라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2종 경전 가운데 전체가 분사판인 것은 51종이고 나머지 21종은 분사판과 대장도감판이 섞여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된 경전은 모두 72종 501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각기간은 계묘년(1243)에서 정미년(1247)까지 5년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각수를 조사해 본 결과, 동일한 각수가 대장도감판도 새기고 분사대장도감판도 새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순 799년 생경은 5권으로 구성된 경전인데 권 2와3은 분사대장도감이고 나머지는 대장도감판이며, 경순 800년 불설의족경은 2권짜리 경전인데 권1은 분사판이고 권2는 대장도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사대장도감이나 대장도감판이 동일한 장소가 아닌 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강화정부는 대장경판을 판각할 여력이 없었고, 최이가 대장경 판각을 주도했습니다. 최이는 당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였고, 진주 지방 일원은 그의 아버지 최충헌 때부터 식읍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안 조에서 보면 최이가 그 재능을 사랑하여 임금에게 말씀드려 국자제주를 제수하니 정안이 최이가 전권대 남을 시키라고 해치는 것을 보고 그 해를 멀리하고자 남해에 퇴거해 부처님을 좋아하며 명산 승찰을 편력하고 사재를 희사하여 국가와 약속하고 대장경의 반 정도를 간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안은 국자제주를 그만둔 고종 28년(1241) 이후 남해로 내려가 대장경 판각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였던 것입니다. 정안의 집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동지역 호족이었고 또 최이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판각이 끝나고 난 뒤 1249년 남해 자기 집을 사자로 꾸미고 일원 선사를 맞아들였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이렇게 남해는 대장경판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간기를 통해 본 대장경판 판각 연도별 분류표>에서 보듯이, 실제로 정안이 남해로 내려가 대장경 판각에 참여한 1242년부터 5년 동안 전체 대장경 판각의 3분의 2이상이 판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안이 남해에 퇴거해 대장경의 절반 정도를 간행했다는 내용은 정안이 당시 최우와의 약속과 함께 이 사업을 주관했고 남해에서 대장경 판각사업을 행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판전에 100 권으로 구성된 <중경록>에 ‘분사남해대장도감’이란 간기가 새겨져 있어 그동안 추정해 왔던 대장경판 판각 장소가 남해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인사 대장경판 목질을 조사한 결과 대장경판 목재 가운데 남해 근처에서 채취한 목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고려 대장경판에 담긴 정신이 오늘에 와서 왜곡되고 퇴색돼 과거 유물로만 치부되고 있다”며 “과거의 명성에 머물지 말고 학자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한 대장경으로 만들고, 고려대장경판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동대신문사)

www.sunmudo.com/www.golgulsa.com

아주 특별한 템플스테이

제 9회 화랑의 후에 골굴사 전통무예대회

함월산 골굴사 산사예술제

태국 무에타이 스님들과 선무도 대결
전통무예를 통한 힐링과 생명나눔 실천 캠페인

금년으로 제 9회를 맞이하는 “화랑의 후에 전통무예대회”는 한국무예계를 대표하는 큰 행사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무예를 통한 “현대인의 힐링과 생명나눔운동”을 주제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큰스님을 모시고 ‘사후 장기기증 서명과 헌혈을 함께 펼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11년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장소 경주 골굴사 경내 (TEL : 054-744-1689)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 문화관광부 · 경상북도 · 경주시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동국대학교 · (주)다본음악 · 오대하의원 · 한겨레신문사

선무도 정기공연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골굴사 공연장(월요일은 휴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재) 선무도 대금강문 한국전통무예총연맹
Golgulsa, Headquarters of Sunmudo